"석굴암, 조선 식민지배 수단"

강희정씨, 동악미술사학회서 주장

신라 천년 예술의 극치로 기하학적 완성을 보여준 석굴암(국보 제24호). 한민족의 자랑으로 1995년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된 석굴암이 한때 일본의 조선 식민지배를 위한 수단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희정 서울대박물관 연구원은 4월 19일 동국대에서 열린 동악미술사학회(회장 윤범모) 월례발표회에서 '식민지 조선의 표상: 석굴암의 공론화'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석굴암의 '공론화'는 석굴암이 대중에 공개되고 조선 대표 문화재가 된 과정을 말한다.

강 연구원은 일본의 조선 고적 조사의 목적이 "합병 전에는 식민지 경영을 위한 사전 작업이었고, 강점 후에는 효율적 식민지배 방편이었다"고 지적했다. 강희정 연구원은 "석굴암을 복원했던 것은 일본이 미개한 조선에 베푸는 시혜로 조선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함이었다"며,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에 석굴암 사진을 보수 전(조선의 과거)과 보수 후(조선의 현재)로 함께 수록한 것을 예로 들었다.

강 연구원은 "총독부 주도의 석굴암 복원이 끝나자 석굴암 관광이 시작됐다. 석굴암 관광은 비문명의 조선과 달리 유적을 보호할 줄 아는 일본의 자랑이었다. 1930년 일본 황족이 석굴암을 방문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것을 강희정 연구원은 "당시 일본인들의 조선 관광은 일본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기회였던 셈"이라 해석했다.

하지만 석굴암 복원은 일제의 시도와는 달리 오히려 조선인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 강 연구원의 주장이다. 1925년 10월 25일자, 11월 9일자 <조선일보> 등에는 '석굴암 불상은 국방의 수호신'이라는 헤드라인으로 석굴암에서의 최남선 강연을 포함한 경주견학단 모집광고가 났다. 신문에서 최남선은 "토함산에 올라가니 홍예처럼 뚫린 굴이 나타나는데 이곳이 바로 나라의 자랑거리, 예술의 정수가 감춰진 곳"이라 평했다.

강희정 연구원은 "당시 평양, 금강산 등에 한정됐던 수학여행지가 보성고보, 대구 신명여중, 포항소학교 등에 의해 경주로 바뀌기 시작했다. 석굴암 등이 있는 경주로 수학여행을 계획했던 것은 민족 자긍심 고취를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강희정 연구원이 <조선고적도보>에 수록된 석굴암 복원 전 · 후 사진을 놓고 설명중이다.

1920년대 이후 전국 곳곳에서 빈번했던 영사회는 민족의 자의식 고취와 계몽운동적 성격이 짙었다. 영사회에서 석굴암은 첨성대, 돌거북, 봉덕사종, 다보탑과 함께 신라 5대 미술로 지정되는 등 석굴암은 민족 자긍심을 키우는 소재가 됐다.

한편 '사찰문화재가 국가나 국민의 것'이라는 인식은 일제 잔재라는 주장도 있었다. 강 연구원은 "일본 문부대승이던 구키 류이치(九鬼隆一)가 '사찰문화재는 국가나 국민의 것으로 박물관에 진열할 의무가 있다'고 말한 뒤, (불상 등) 사찰문화재는 신앙의 대상에서 미술의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결사는 참여도 공동체 운동도 아니다

김호성 교수, 보조사상연구원 월례발표회서

보조지눌의 정혜결사, 원묘요세의 백련결사, 가깝게는 봉암사 결사 등 교단 개혁의지가 자정운동으로 발현된 결사가 반드시 참여를 뜻하는 것도 아니며, 공동체 운동이 아닐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4월 19일 동국대에서 열린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법산) 제80차 정기 월례학술대회에서 김호성 교수(동국대)는 '결사 개념의 재검토와 탄허의 결사운동'을 발표했다.

김 교수의 발표는 결사를 ▲수행운동 ▲개혁운동 ▲이념운동 ▲공동체운동의 성격으로 설명한 것부터 시작됐다. 그는 "특히 ▲개혁운동 ▲공동체운동의 사항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결사는 참여 속의 개혁이 아니라는 점과 반드시 공동체 운동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개혁세력인 진보가 정치화 · 권력화 돼 보수로 바뀌며 개혁의 주체에서 개혁의 대상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잦았다"고 지적하며, "정치화 · 권력화 등을 경계했다는 점에서 결사가 반드시 참여나 개혁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호성 교수는 <삼국유사>의 피은(避隱)과 동진(同塵)을 예로 들어 "피은이 산중에서 숨어사는 것이라면 동진은 사람들 속에서 숨어사는 것이다. 결사의 개혁성은 '참여 속의 개혁'이 아닌 교단의 반윤리적 상황에 대한 윤리적 대응과 윤리적 개혁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결사의 본질적 조건인 수행운동을 위해서라도 결사가 '참여 속의 개혁운동'일 수는 없었다"고 역설했다.

김호성 교수는 교단의 권력화를 경계한다는 의미에서 진일보해 "홀로 하는 것도 결사"라는 새로운 주장을 펼쳤다. 그는 교단의 권력화 양상을 세속권력과 관계 맺거나 내적으로 교단 안에서 발생하는 권력 기제로 나눠, 사람들이 모이면 권력관계가 형성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김호성 교수는 "붓다의 출가 자체가 권력을 넘어서는 일이었다"면서 "권력으로부터 살아남는 방법은 뭉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참다운 보살행을 위해 (붓다처럼) 무쇼의 뿔처럼 혼자서 살아가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는 연대하지 않는 각성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를 '홀로결사'로 표현하고 역경불사로 평가되던 탄허 스님의 수도원운동을 결사로 재평가했다.

김호성 교수는 "결사는 불교교단의 문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다. 직접 그 상황에 참여해 개혁하는 대신 그 상황으로부터 피은해 먼저 스스로 수행함으로써 장차 그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하는 일이다. 종단의 제도나 조직을 활용하지 않는 순수 민간, 재야 차원의 탈권력 · 탈정치를 지향함에 반드시 2인 이상의 모임이 아니어도 무방하다"고 재정의했다.

한편 '선사상과 심리치료'를 주제로 열렸던 이날 학술대회에는 이남경(동국대 강사)씨가 '심리치료를 위한 선과 인본주의 접근법 비교연구'를 발표했다. 조동섭 기자

사회자 김성철 교수, 발표자 김호성 교수, 논평자 김광식 교수, 홍사성 불교평론편집위원(왼쪽부터).

"법화삼매와 간화선은 같기도 다르기도 해"

학담 스님, 법화학천태학연구회서 강연

"깨달음만을 법칙으로 삼아 맛없고 뜻 없는 말귀를 봄으로써 본래 면목을 직하에 사무쳐 통달하는 간화선과 <법화경>에 의지한 법화삼매는 같은가, 다른가?"

4월 19일 동국대에서 열린 법화학천태학연구회(회장 리영자) 춘계 학술강연회에서 '법화삼매와 간화선'을 주제로 기조강연한 학담 스님(대승사 주지 · 사진)은 "간화선은 뜻과 이치가 끊긴 활구를 통해 무념을 증득해 가는 선법이지만 법화삼매는 바른 뜻과 이치를 세워 이치에 이치 없는 중도실상을 바로 살펴 삼매로 나간다는 점이 다르다"고 말했다. 스님은 "간화선에서 의단을 끊어 뜻도 뜻 없음도 사라지는 순간과 법화삼매에서 뜻과 이치를 따라 '하나의 진실'을 사유해 삼매를 얻는 순간이 같다"며 "간화선과 법화삼매의 차별을 떠나 수행방법은 깨달음의 결과에 대한 인행의 성격을 지닌다"고 정의했다. 스님은 이 같은 논지를 남악 선사와 대혜 선사의 법화삼매 증득, 천태교와 선수행으로 나눠 설명했다.

한편 강연회에는 김선근 교수(동국대)가 '법화영험과 서사공덕' 민희식 교수(前 한양대)가 '법화경과 신약성서' 김성구 명예교수(이화여대)가 '사성제에 대한 과학적 고찰' 지창규 교수(동국대)가 '천태 대사와 원효 대사'를 강연했다. 강연회에 앞선 학술발표회에는 이승남(동국대 박사과정)씨 등이 천태학에 관한 논문들을 발표했다.

조동섭 기자

"운암 김성숙은 진보적 민족주의자"

한상도 교수, 운암 김성숙 학술회의서 발표

4월의 독립운동가로 운암 김성숙 선생(법명: 태허)이 지정된 것을 기념해 운암의 생애를 학술적으로 재조명하는 발표회가 열렸다. 4월 25일 서대문 독립관에서 열린 학술발표회에서 한상도 교수(건국대)는 '승려에서 임시정부 요인으로'란 발표를 통해 운암 김성숙 선생을 진보적 민족주의자라 평가했다.

한 교수는 "운암은 1916년 서간도로 망명하려다 양평 용문사에서 불교에 귀의해 태허라는 법명을 받았다. 1918년에는 경기 봉선사 월초스님 문하에서 불교교리를 배우며 근대사회과학에 눈떴다"고 말했다. 그는 "3 · 1운동 때 양주 · 포천 등지에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다 체포됐던 운암이 옥중에서 사회주의사상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출고 후 베이징으로 망명해 의열단 및 한인 아나키스트들과 교류하며 진보적 근대정치사상을 섭렵했다"면서 1923년 10월 불교유학생회 조직 결성과 '상하이 문화계 구국운동 선언' 발표 등 행적을 소개했다.

한상도 교수는 "임시정부요인이었던 김성숙은 이승만 등 우익 편중 결집체에 대항해 좌 · 우익 대립을 지양하고 민족통일을 이뤄야한다고 주장했던 민족주의자였다"고 평가했다. 한 교수의 발표는 "신한당 · 신민당 등 4 · 19혁명 이후 정치활동에 동참했던 운암이었지만 1969년 운명할 때까지 혁신계 인사로 감시의 대상일 뿐이었다"면서 "1982년 뒤늦게나마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된 것은 다행"이라고 끝맺었다.

조동섭 기자

'현대불교' 후원은
포교에 동참하는 길!

우리 학회는 (14)금오사상연구소

5월 2일 현판식…조계종 정체성 연구 매진

한국불교 정화운동의 주역으로 일생을 간화선 수행과 두타행의 실천으로 살다간 선지식 금오 스님의 열반 40주기를 기념해 금오사상연구소가 5월 2일 설립된다.

금오 스님은 1912년 16세에 금강산 마하연 선원 출가 후 줄곧 계율 중심의 신조로 간화선 참학에 매진했던 수행자로 일본 강점기 창씨개명을 거부했던 민족주의 승려였다. 부종정과 감찰원장, 총무원장, 봉은사 · 법주사 등 주지를 역임했던 스님은 1954년 6월 24일 열렸던 승려대회 준비위원장이기도 했지만 그동안 한국불교정화운동사에서 소외돼 있었다는 것이 금오문중 스님들의 평가다.

금오사상연구소 발족준비위원장 월서 스님은 "금오 스님의 참여로 한국불교 정화운동에서 승가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었다. 정화운동사에서 스님에 대한 역사성을 고증하고 간화선 실천행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불교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4월 22일 열린 조계종 유교법회와 25일 열린 경허 · 만공 학술회의 등 조계종 정체성 확립의 움직임이 금오 스님 사상 연구소 설립으로 이어져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금오사상연구소 현판식은 5월 2일 서울 내자동에서 열린다. (02) 919-0211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 서비스] 검색 → 114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오시는 길 ▷

• 성화불교전시관 : 02)2209-0080
• 성화불교미술원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주 · 야 상담 합니다
서울시 중랑구 망우1동 133-33 태창빌딩 1층

불상, 석탑, 석등 사찰공사 전문업체 일심석재
대한민국 석공예명장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등석 : 황등석은 색상이 아름답고 천 년의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아 절분이 많고 쉽게 부식되는 중국산 수입 돌과는 차원이 다른, 석질이 우수한 익산에서만 생산되는 무절분 화강암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931-1
전화 063)836-0231 팩스 836-7527
011-673-7527

김옥수 석공예명장
• 대한민국 석공예명장
• 전라북도 무형문화재(제36호)
• 대한명인(06-122호)
• 現 일심석재/일심산업 대표이사
• 전국기능올림픽 석공예 2위
• 대한불교조계종 금산정사 공로패 수상
• 원광대학교 대학원 한국사상과정수료
• 대한광업진흥공사 석공예기능 훈련강사 역임
• 전국 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 역임
• 노동부장관 표창
• 대구기능대학교 명예교수
• 사)돌문화보존회 이사장
• 제9회 돌문화축제위원회 위원장
인터넷 블러그에 「김옥수」 또는 「일심석재」를 검색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